

빛 깊으려 논밭 내놓는 전남 농민들

경영위기 농가, 땅 농지은행에 팔아 부채 상환...5년간 800건 농어촌공, 올 사업예산 420억 책정...농민들 우선 재매입 보장

농산물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농가부채가 늘면서 농지를 내놓아 빚을 갚으려는 전남지역 농민이 최근 5년간 800명에 달했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지난 5년 동안(2015~201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건수는 800건으로 집계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 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전남지역본부가 사들인 농지에 대한 매입금액은 485억2200만원으로 전년 459억3400만원보다 5.6% 증가했다. 땅을 판 농민들의 순부채금액은 지난해 532억8500만원으로 평균 부채가 3억7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부채는 전년(3억5000만원)에 비해 21.3% 뛰었다.

최근 5년 동안 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추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건수는 2015년 171건(매입 면적 316ha), 2016년 138건(278ha), 2017년 183건(332ha), 2018년 164건(260ha), 2019년 144건(216ha) 등 총 800건(1402ha)이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지급한 ha당 평균 금액은 2억24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 매해 150명 넘는 농민이 생산기반인 땅까지 내놓으며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데는 급증하는 농가부채가 깔려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가부채는 지난 2018년 기준 2433만4000원으로 전년(2246만6000원) 보다 180만원 넘게 많아지면서 증가율이 8.3%에 달했다. 반면 전남 농가 평균소득은 394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6482만)에 비해 2500만원 넘게

뒤쳐졌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420억원 확보하고 자연재해,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과 농지에 딸린 고정식 온실과 축사 등 농업용 시설 등이다.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가 최장 10년간 매도가의 1% 이내 수준 임차료를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환매권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신청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 50%,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는 제도. 농가는 매입가격의 1% 정도를 연 임대료로 내고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7년(최대 10년) 안에 도로 사들일 수 있다.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해 임대료 절감에 여력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농지매입 대상에 '복합용지'를 포함해 경영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의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전개해 광주·전남 농어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조명기업 '휴먼라이텍' 대한민국 조명대상서 '대상'



김정연(왼쪽) 휴먼라이텍 상무이사가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하는 모습.

광주지역 LED 조명기업 ㈜휴먼라이텍(대표 임영상·박홍배)이 경관조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했다.

휴먼라이텍은 한국조명신문 주관으로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조명대상' 시상식에서 경관조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관조명용 LED조명기구 전문 제조업체 휴먼라이텍은 지난 2005년 첨단산단에 설립됐다. 육외 경관조명분야에서 설계·제작·시공·운용기술을 모두 갖추고 경관조명기구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휴먼라이텍은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수많은 경관조명사업의 시공을 통해 경관 개선, 조명산업 및 문화 창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휴먼라이텍이 경관조명 사업을 벌인 완도군은 이번 조명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H농협은행 전남본부,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협은행, 전남도는 지난 14일 전남도청 등에서 '사랑의 꽃 나눔 행사'를 열고 공무원에게 장미 2800송이를 나눠줬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장미 3만 송이 구매 나눔행사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장미꽃 3만 송이를 구매하기로 했다.

전남영업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장미 3만 송이를 구매해 전남지역 영업점 40곳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배포된 장미는 영업점 장식용

이나 우수고객 증정용으로 쓰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농협은행, 전남도는 화훼류 소비촉진을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에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꽃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최 측은 '벨벳타인데이'를 맞아 장미 2800송이와 백색기를 나눠주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권유했다.

서육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꽃 수요의 감소로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훼류 소비촉진 행사는 전국의 농·축협과 범 농협 계열사까지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 2250선 회복...코스닥 2.42%↑

코로나19 확산세·중국 경기부양책 주목

IT·2차전지·바이오 등 외국인 투자 주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도 2250선을 회복했고 지난주 코스닥지수 역시 2.42% 상승하며 688.91pt를 기록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하락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이 주식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학습효과를 고려해도 예상보다 빠른 반등이다. 이번 반등은 전염병이 '펀더멘탈'(기초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기록적인 주가상승과 유럽 전기차 보급률 확대로 배터리 공급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도 크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반도체와 2차전지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상승으로 가격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1까지 코스피지수 1000선에서 2000선 돌파를 이끌었던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업종과 대표종목에 집중하는 윗물 현상이 보이고 있다. 주가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경우 추격매수는 어렵겠지만 외국인의 IT를 향한 자금유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 IT의 이익 모멘텀은 중국이나 대만 등 이머징(신흥)국가에 비해 긍정적이므로 추세상승을 보이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은 단기 조정을 이용해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기준을 조정하면서 확진 환자가 5만2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 역시 1367명으로 급증했다.

발표 수치만 보면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10일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당국서기와 주임이 해임된 이후 나온 결정이기에 그간 통제 조종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발표수치보다 향후 중국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다음달 초 양회를 전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주 열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피트 부티지 지(24.4%)에 근소한 차이로 버니 샌더스(26.6%)가 승리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선호하고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 바이든 전 대통령이 5위로 크게 밀리면서 민주당 경선이 금융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주에도 코로나19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변화가 없다면 IT와 2차전지, 바이오 등 기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대비 중소형주의 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형주의 곁매우기가 진행될 수 있어 단기관심도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